

6世紀 前半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金 鎮 漢*

1. 머리말
2. 安臧王代의 對內外關係
3. 安原王代의 對內外關係
4. 맺음말

1. 머리말

북위와의 관계는 고구려 대외관계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다. 문자왕 재위전반 북위와 몇 차례 갈등이 있었지만 이후 별다른 마찰 없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였다.¹⁾ 그러나 문자왕을 뒤이은 안장왕(519-531)은 對北魏外交를 단절하고 對梁外交를 꾸준히 지속해 나갔으며 안장왕 사후 안원왕(531-545)은 대북위외교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외교노선의 전환배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1) 김진한, 「文咨王代의 對北魏外交」, 『韓國古代史研究』 44, 2006.

경²⁾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다만 외교가 내정의 연장임을 감안할 때, 외교관계의 변화는 내부동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주지하듯, 안장왕과 안원왕대 고구려 내정을 알려주는 국내측 기록은 거의 전무하며 외국사서에 실린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추정할 따름이다. 다행히 조공 및 책봉, 전투 기록 등이 남아 있어 고구려 대외관계의 대체적인 흐름은 짚을 수 있는 만큼 고구려 내정의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기록을 검토함으로써 6세기 전반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2. 安臧王對內外關係

(1) 安臧王의 卽位와 對北魏外交의 斷絶

안장왕이 즉위한 뒤 남북조로부터 받은 책봉호는 앞선 시기 두 왕에 비해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인접한 백제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이다.³⁾ 이는 고구려의 국세가 예전에 없이 위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안장왕대 고구려의 對南北朝關係는 변화를 맞고 있었다. 이는 고구려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있었음을 말하며 안장왕대 책봉호 하락과 무관

2) 안장왕대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북위의 불안정한 내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태돈,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46-347쪽; 井上直樹, 「『韓暨墓誌』を通して見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 -六世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 178, 2001. 20-22쪽; 김종완, 「南朝와 高句麗의 關係」, 『高句麗研究』 14, 학연문화사, 2002. 359쪽.

3) 책봉호를 통해 고구려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한 이는 三崎良章이다(三崎良章, 「北魏の對外政策と高句麗」, 『朝鮮學報』 102, 1982. 167쪽 註 28). 하지만 위상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

치 않다. 그런데 안장왕의 책봉을 둘러싸고 남북조와 고구려간 묘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시사를 던져준다.

519년 문자왕 사후, 북위의 실권자 영태후는 문자왕의 죽음에 거약을 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귀위 관작을 追贈할 만큼 호의적으로 대우⁴⁾하였다. 그 해 북위는 大鴻臚卿 劉永을 파견하여 安을 高麗王으로 책봉하였다.⁵⁾ 그런데 문제는 이듬해 정월 고구려가 梁에 견사하면서 시작되었다. 梁 高祖는 안장왕을 책봉하고 使者 江法盛을 파견하였으나 가는 도중 북위병에게 사로잡혀 낙양으로 압송되었다.⁶⁾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正光(520.7-525) 初 북위는 孫紹를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⁷⁾ 시간상 손소의 파견은 梁 고조의 對高句麗사행에 대한 대응으로 對梁관계에 대한 경고와 함께 책봉호의 재조정을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신의 관품변화이다. 손소는 파견 당시 中書侍郎을 兼하였다. 이는 종4품上인데 반해, 유영은 大鴻臚卿으로 正3품이었다. 물론, 520·30년대 유연에 員外散騎常侍·通直散騎常侍(정4품下)와 侍中(정3품)이 사신으로 갔던 점을 고려한다면⁸⁾ 결코 낮은 관위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 해 사이 사신의 관위가 떨어지고 안장왕에 대한 책봉호도 예전에 없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는 그 만큼 고구려의 對梁外交에 북위가 신경을 쓰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표1> 主要國의 對南北朝關係表⁹⁾

北魏/東魏				年度	梁			
高句麗	吐谷渾	柔然	梁		高句麗	吐谷渾	柔然	其他
←	←2	←	◀	515			←	
	←2		▶▶	516	←	←	←	
←	←3	←		517		←		
←2 ¹⁰⁾	←3	←		518				
追贈→	←	內附		519				
冊→	→	內附	→ ¹¹⁾	520	→	←	←	
		內附		521				←百濟新羅
	←			522				
←		▶	◀	523				
	◀		◀	524				百濟(冊)
	◀	←	◀	525				
			◀	526	←	←		
		←3	◀	527	←			
			◀	528			←	
			→ ¹²⁾ ◀	529		冊	←	
		◀	◀	530		冊		
	←			531	冊 ¹³⁾			
冊→←2		←4		532	←2			
←		←		533		←		
冊→←	←		◀	534	←	冊		←百濟
←			◀	535	←			
←			▶→←	536				
←		←	→←←	537				
←			2→←←	538		←	←	
←			→←←	539				
←		←	2→←2	540		←		
←		←	→←←	541	←		←	←百濟
←	←	←	2→←2	542				
←	←	←	→←←	543				
←	←	←	→←2	544				
←	←	←	2→←	545				

4) 『魏書』卷100 高句麗傳, “神龜中 雲死 靈太后爲舉哀於東堂 遣使策贈車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
 5) 『魏書』卷55 劉永傳, “神龜中 兼大鴻臚卿 持策拜高麗王安 還 除范陽太守”
 6)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卷7 安臧王 2年, “春正月 遣使入梁朝貢 二月 梁高祖封王爲寧東將軍都督營平二州諸軍事高句麗王 遣使者江注盛 賜王衣冠劍佩 魏兵就海中執之 送洛陽 魏封王爲安東將軍領護東夷校尉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秋九月 遣使入梁朝貢” 이와 관련해 『通志』에는 당시 집권자였던 영태후가 이들을 맞이하였으나 크게 개의치 않는 듯이 서술하고 있다(『通志』卷194 四夷傳第一 東夷, “是歲 魏光州 又於海中執得梁所授安爵命及衣冠劍佩 并使人江法盛等 送京師靈太后 亦不深責之也”).
 7) 『魏書』卷78 孫紹傳, “正光初 兼中書侍郎 使高麗 還 爲鎮遠將軍 右軍將軍”
 8) 三崎良章, 위의 논문, 151쪽.

9) 『三國史記』, 『魏書』, 『梁書』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기타 부호의미는 다음과 같다. ← : 상대국의 견사, → : 당사국의 견사, ◀ : 상대국의 공격, ▶ : 당사국의 공격, 숫자 : 파견 횟수

그런데 사신왕래를 주의해서 보면 고구려가 북위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킨 것이 우연한 일만은 아닌듯하다. 왜냐하면, 안장왕은 이후 북위와 외교를 단절하고 對梁外交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즉위 전후 벌어진 북위와의 마찰은 안장왕이 구상했던 외교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안장왕이 기존 북위중시외교를 재검토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대체로 고구려와 북위의 내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북위의 정국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선무제가 죽은 뒤, 효명제(515-528)가 제위에 올랐다. 효명제 재위 십여 년간 정권다툼은 어느 때보다도 격렬하였다. 우충이 금위군을 장악하여 효명제의 즉위에 큰 힘을 실었으나 곧 이어 영태후가 임조칭제하였다.¹⁴⁾ 어린 황제를 낀 영태후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는 종실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元雍, 元澄(519.12死), 元懌 등이다. 특히 元懌은 영태후와 부적절한 관계¹⁵⁾에 있던 인물로 520년 7월 元叉에 의해 제거되었다. 그런데 영태후가 5년 가까이 북위정권을 옹호하는 가운데 매부인 元叉가 영태후와 황제사이를 이간시켜 525년까지 권력을 장악하였다. 520년 이후 525년 재집권하기까지 영태후는 원차와 지속적인 갈

10) 『三國史記』에 따르면, 이 해 2, 4, 5월 총 3회에 걸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魏書』에는 2, 5월에 사신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冊府元龜』에는 2, 4월 두 차례 파견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사신은 총 2회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사서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4, 5월을 별개로 파악한 듯하다. 여기서는 『魏書』에 의거하여 2, 5월 두 차례 사신이 파견되었다고 보았다.

11) 『資治通鑑』 149 梁紀5 普通元年.

12) 『北齊書』 卷31 王昕傳, “魏永安初 第二兄暉聘梁…” 永安(528.9-530) 초라면 528-529년 사이 일 것이다.

13) 안원왕이 襲爵한 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이한 기록이 있다. 『三國史記』는 531년 襲爵한 것으로 나오며(『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原王, “安臧在位十三年薨 無嗣子故即位 梁高祖下詔襲爵”), 『梁書』는 526년 습작하였다고 기록하였다(『梁書』 卷54 高句麗傳, “普通 七年 安卒子延立 遣使貢獻 詔以延襲爵”).

14) 『魏書』 卷9 肅宗紀 延昌 4年, “九月乙巳 皇太后親覽萬機”

15) 『魏書』 卷13 宣武靈皇后胡氏, “時太后得志 逼幸清河王懌 淫亂肆情 爲天下所惡”

등관계에 놓여 있었다.

북위정국은 대외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영태후와 元叉의 권력다툼과정에서 희생되었던 元懌의 죽음은 서울에 와 있던 夷人에게도 널리 전해졌다.¹⁶⁾ 이와 함께 正光 初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손소가 당시 국정에 대해 사방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문제를 지적한 점¹⁷⁾은 주목할 만하다. 북위에 지속적으로 사절을 파견하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고구려와 토욕혼은 북위의 정국동향에 주의하였다. 위 표에서 보듯, 520년 이후 10여 년간 한 차례 정도의 사절만이 확인될 만큼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정국 흐름에 대한 파악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정국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안장왕은 문자왕의 장자로 문자왕 재위 7년 태자에 책봉되었으며 519년 즉위하였다. 사실 안장왕이 즉위하기 전부터 내부 불안요소가 조금씩 표출되고 있었다. 문자왕대의 잦은 천재나 궁문봉괴 사건은 이를 짐작케 한다.¹⁸⁾

그렇다면 불안요소란 무엇인가? 문자왕대 고구려 대외관계는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 백제는 동성왕대 체제정비를 바탕으로 무령왕대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다. 밖으로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략을 벌였다. 504년 고구려 사신 예실불이 조공품 미비를 백제 탓으로 돌리며 맹비난하고 있는 것은 백제의 국력이 신장되었음을 반증한다. 신라 또한 백제와 군사동맹을 맺어 공동대응에 나서는 한편, 체제정비에 힘을 기울인다. 소지마립간은 관도 및 우역을 설치하고 잦은 순행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높여나갔다. 이러한 내적 성장의 토대위에 고구려를 소백산맥이북으로 구축하였

16) 『魏書』 卷22 清河王懌傳, “正光元年七月 叉與劉騰逼肅宗於顯陽殿 閉靈太后於後宮 囚懌於門下省 誣懌罪狀 遂害之 時年三十四 朝野貴賤知與不知 含悲喪氣 驚振遠近 夷人在京及歸聞懌之喪 爲之劈面者數百人”

17) 『魏書』 卷78 孫紹傳, “紹又表曰…今東南有竊號之豎 西北有逆命之寇 豈得怨天 實尤人矣 臣今不憂荒外 正慮中畿 急須改張 以寧其意”

18) 김현숙, 「6세기 고구려 集權體制 動搖의 一要因」, 『慶北史學』 22, 1999, 11쪽.

다. 북방정세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물길의 북위와의 근거리 교역로를 확보함으로써 고구려의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하였다. 물길의 교역로 확보는 북위와 정치경제적 관계를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고구려 북변에 대한 위협을 가중시켰다.¹⁹⁾

이러한 외적상황은 고구려 내부에 불안한 기류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문자왕을 이어 즉위한 안장왕이 타개해 나가야 할 과제였다. 안으로 안장왕은 521년 졸본에 이르러 시조묘에 제를 올린 뒤 국내 각지를 순행하며 구휼을 병행하였다. 이는 舊都로써 소원해진 국내지역을 위문하고자 하는 정치적 배려였다.²⁰⁾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이다. 당시 무령왕은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해 梁 및 신라와 화친정책을 취하고 있었다.²¹⁾ 521년 백제가 遣梁使를 파견하였을 때 신라가 동행하였다.²²⁾ 당시 백제의 사정과 梁의 태도는 다음 기록에서 잘 엿볼 수 있다.

a. 普通二年(521) 王餘隆始復遣使奉表 稱累破句驪 今始與通好. 而百濟更爲 強國. 其年 高祖詔曰行都督百濟諸軍事 鎮東大將軍百濟王餘隆 守藩海外 遠脩 貢職 迺誠款到 朕有嘉焉. 宜率舊章 授茲榮命. 可使持節 都督百濟諸軍事 寧 東大將軍百濟王. (『梁書』卷54 百濟傳).

우리는 521년 표문을 올리며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하였다고 말하는 백제사신의 자신에 찬 표정을 읽을 수 있다. 梁은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조를 내려 직공을 다하는 백제에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

19) 김진한, 앞의 논문, 176-183쪽.

20) 임기환은 국내계 세력이 안장왕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다시 세력을 만회해 갔을 것(임기환, 「6-7세기 정치세력의 동향과 귀족연립체제」,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267-268쪽)으로 보았다.

21) 이기백, 「百濟史上의 武寧王」,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96, 193쪽.

22) 『梁書』卷54 新羅傳, “普通二年 王姓募名秦 始使使隨百濟奉獻方物”

고 백제왕으로 책봉하였다. 이러한 백제의 동향에 신경을 쓰고 있던 안장왕은 523년 무령왕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는 틈을 타 군사를 보내어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이 물러간 뒤 성왕은 525년 신라와 교병²³⁾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장왕은 백제에 대한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외교노선의 변화 모색은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주목된다. 남북조의 동향을 관망하던 중 외교 전환의 기회가 왔으니 524년 북위의 대혼란이 그것이다. 옥야진민 파락한발릉의 반란을 시작으로 북위는 6년간의 긴 內訌을 겪게 된다. 여파는 고구려와 국경을 마주한 영주에까지 미쳐 524년 10월 영주성민 유안정, 추덕홍이 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²⁴⁾ 더구나 양무제는 이를 기회로 지속적인 북벌을 단행함으로써 북위를 멸망직전까지 몰아넣었다. 이러한 북위의 동향에 주목하던 고구려는 북위와 교류를 단절하였다. 수년간 남북조에 대해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새롭게 對梁關係를 외교의 중점으로 선택한 것이었다.²⁵⁾ 결국 462년부터 재개되었던 대북위관계가 60여 년 만에 장기간 단절된 것이다.

이러한 안장왕의 외교방침은 어느 정도 위협을 감수한 것이다. 더구나 孝昌(525-528)연간에는 북위의 변경을 침략하여 유인을 데리고 오기까지 하였다. 이 때 고구려가 유인들을 확보하여 요서지방으로 진출하고자 했다고 보는 견해²⁶⁾도 있다. 하지만 북위의 변경을 공략하고 일부 유인집단을 받아들

23)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聖王 3年, “春二月 與新羅交聘”

24) 『魏書』卷9 肅宗 正光 5年, “冬十月 營州城人 劉安定就德興據城反…”

25) 井上直樹는 고구려가 梁에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는 것은 북위와의 관계악화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전술로 추정하였다(井上直樹, 앞의 논문, 24-25쪽). 이후 백제에 대한 공세가 더욱 적극화되고 있음을 볼 때, 백제견제를 위한 측면도 생각할 수 있다.

26) 이성제, 「高句麗와 北齊의 關係」, 『韓國古代史研究』 23, 2001, 236-248쪽 ;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2005 재수록. 井上直樹는 이때 고구려가 平州까지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井上直樹, 위의 논문, 22-28쪽)고 보았다. 한편, 노태돈은 고구려가 북중국방면으로 진출할 의도가 없었고 중국지역의 내분과 상쟁이 고구려 안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노태돈, 앞의 책, 348쪽)고 보았다.

인 점은 사실일지라도 이후 고구려가 이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표2> 遼海諸國의 對北朝遣使表²⁷⁾ (●: 月 不明, 月(2:파견 횟수))

年月 國名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勿吉		6	6													
契丹						5,12								6(2)		4
庫莫奚					9	5,12		4						6(2)		
地豆于						5,12										
室韋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勿吉		12				6	●			●	●	●	●			
契丹	3														●	1
庫莫奚					● ²⁸⁾											12
地豆于										1	●	●			●	1
室韋										4	●	●		●	●	

이러한 사실은 고구려 및 북위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요해제국의 동향에 서도 볼 수 있다. 고구려는 문자왕대 물길과의 상쟁에 밀려 요해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507년 이후 물길, 고막해, 거란 등 요해제국이 북위에 조공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은 이를 말해준다.²⁹⁾ 안장왕대

27) 안장왕 이후 양원왕 초까지 요해제국의 조공기록을 정리한 위 표는 『魏書』, 『北史』, 『冊府元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요해제국은 533년까지 北魏, 534년부터 549년까지 東魏, 550년부터 575년까지 北齊에 遣使하였다.

28) 西魏에 遣使.

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아 고구려의 공식적인 교섭이 단절된 뒤에도 거란, 고막해, 지두우 등은 북위와 교류하고 있었다. 요해제국의 북위조공을 보여주는 위 표는 이를 말해준다. 526년 이후 5년간 교섭이 끊어졌지만 북위의 내란이 진정된 530년대부터 다시 조공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고구려가 요서지역으로 진출하여 이 지역을 장악하였다면 530년대 이후 요해제국과 북위와의 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구려가 요서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다고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안장왕이 520년 북위와의 마찰을 감수하고 梁에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은 문자왕대 후반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남북방관계가 고구려 내부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안장왕은 정국을 관망하며 북위가 전국적인 내란에 접어들자, 기존 남북조관계를 전면 모색하여 梁과 우호관계를 다져나갔다.

(2) 安臧王의 政界改編 試圖과 挫折

梁과 우호관계를 수립한 이후, 고구려는 백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³⁰⁾의 고삐를 당겼다. 이는 비단 외압을 제거하고자하는 일만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안장왕의 또 다른 고민이 숨어 있었다. 아래 기사는 당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시사를 준다.

b. 冬十月 王與百濟戰於五穀 克之 殺獲二千餘級.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臧王 11年).

冬十月 高句麗王與安躬帥兵馬來侵 拔北鄙穴城 命佐平燕謀 領步騎三萬 拒戰

29) 김진한, 앞의 논문, 177-179쪽.

30) 김현숙은 안장왕 즉위 이후 정책방향을 둘러싼 귀족세력간의 갈등양상으로 왕권이 약화되자, 내부갈등을 봉합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한강 유역 일대를 되찾고자 했음을 지적(김현숙, 『고구려의 영역 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40-341쪽)하였다.

於五穀之原 不克 死者二 千餘人.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聖王 7年).

c. 北漢山郡 一云平壤…王逢縣 一云皆伯 漢氏美女迎安臧王之地 故名王迎.
…達乙省縣 漢氏美女 於高 山頭 點烽火迎安臧王之處 故後名高峰. (『三國史記』卷37 雜志 第6 漢山州).

b기사에 따르면, 529년 안장왕은 몸소 군대를 거느리고 백제북변의 穴城을 함락하였으며 백제군 3만여 명과 五穀原³¹⁾에서 일전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싸움은 백제에 큰 타격을 주어 고구려가 한수 하류유역으로 진출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였다.³²⁾ c기사의 안장왕과 한씨미녀 이야기는 이 점에서 주목된다. 여기에 언급된 왕봉현은 오늘날 고양시로 비정³³⁾되며 이 지역은 한수 이북과 임진강 사이에 위치한다. 이 기사가 앞서 오곡원 전투의 연장선위에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구려가 한수 이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황해도까지 진출했던 백제군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c기사는 b기사의 연장위에 있다고 생각한다.³⁴⁾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한씨 미녀로 대표되는 지역 세력들의 동향이다. 고구려가 한수 하류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은 지역의 민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춰 볼 때 한씨녀가 안장왕을 맞이했다고 한

31) 황해도 서흥으로 비정된다(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上, 을유문화사, 1983, 340쪽).

32) 한수 유역의 향방에 관한 논의는 최근 분분한 실정이다. 필자는 『三國史記』에 기재된 한산 및 한산성의 백제영유기사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접근하여 기존 불신론이나 통설이었던 지명이동설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였다(김진한, 「5世紀 末 高句麗의 對北魏外交와 漢城 攻略」, 『北方史論叢』12, 2006, 321-324쪽). 아울러 한수 유역의 향방과 관련한 논의도 한수 하류와 중상류로 구분해서 보아야한다. 이러한 입장의 경우, 백제는 동성왕대 한수 하류유역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김진한, 앞의 논문, 179-181쪽) 고구려는 안장왕대 이르러서야 한수 하류유역을 장악하였다고 생각한다.

33)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下, 을유문화사, 1983, 194쪽.

34) 529년 10월 오곡원 전투와 한씨 미녀 설화를 연관시켜 이해한 선행연구가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3, 1999, 158-159쪽; 김영관, 「百濟의 熊津遷都 背景과 漢城經營」, 『忠北史學』11·12, 2000, 81쪽; 조희승, 『백제사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196-197쪽; 김현숙, 앞의 책, 339쪽; 주보돈, 「5-6세기 중엽 高句麗와 新羅의 관계」, 『北方史論叢』11, 2006, 83쪽.

점은 이 지역 세력들이 고구려의 한수 하류유역 장악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생각해 볼 때, 고구려가 운영했던 三京制를 떠올릴 수 있다. 고구려가 평양과 국내성 이외에 副都로 황해도 신원군 일대에 '漢城'을 운영한 것은 평양일대에 기반을 둔 기존 정치세력들을 효율적으로 편제하려는 목적³⁵⁾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입되는 여타세력을 끌어안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기묘지'에서 보듯, 북위 말 혼란을 틈타 漢人을 대거 고구려로 데려왔다. 이들 중 한상이 대사자의 관등을 받고 있다. 고구려가 漢人系를 등용하여 외교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점에서 안장왕의 정치적 조합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즉 기존의 국내계 및 평양계 귀족에 더하여 漢水 流域³⁶⁾ 및 漢人계통의 인물을 등용하여 정치세력의 다변화를 꾀하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역인사들의 중앙 진출, 구체적으로 수도 5부로의 편입은 그에 수반하여 귀족간의 갈등이나 불만을 야기하는 한 요소가 되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³⁷⁾ 그런 가운데 안장왕이 시해되었다는 『日本書紀』 기록과 뒤이어 즉위한 안원왕이 대북위의교를 재개한 점은 두 왕대에 걸쳐 무언가 세력변화가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즉 대외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일련의 세력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짙다. 아래 기사를 통해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d. 諱興安 文咨明王之長子 文咨在位七年立爲太子 二十八年王薨 太子卽位.
十三年 夏五月 王薨 號爲安臧王.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臧王).

e. 是月 高麗弑其王安. (『日本書紀』卷17 繼體紀 25年 12月條 註).

35) 임기환, 「고구려의 副都 漢城과 지방통치」, 『韓國古代中世 地方制度의 諸問題』, 집문당, 2004, 15-25쪽.

36) 475년 백제 한성 공략 후, 장수왕은 남녀 8천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었다.

37) 노태돈, 앞의 책, 465쪽.

f. 諱寶延 安臧王之弟也 身長七尺五寸 有大量 安臧愛友之 安臧在位十三年 薨 無嗣子 故卽位 梁高 祖下詔襲爵.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原王).

g. (普通) 七年 安卒子延立 遣使貢獻 詔以延襲爵. (『梁書』卷54 高句麗傳). 安在位九年卒 子延立 遣使修貢於梁 梁武以延襲爵…延在位二十三年卒. (『通志』夫餘傳).

f사료에 주목해 보자. 안장왕에게는 후사가 없었다고 한다. 안장왕은 문자왕 7년 태자로 책봉받았다. 문자왕이 죽고 그가 즉위할 때는 이미 청장년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나이였다. 그런 그가 후사가 없었다는 것은 뒤를 이을만한嫡子가 없었다는 것인지, 생식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지증왕 즉위조에 보면 전왕(소지마립간)이 아들이 없어 왕위를 이었다고 한 기록이 있다.³⁸⁾ 하지만 소지마립간은 벽화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無子란 적장자가 없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안장왕의 無嗣子라는 의미도 글자 그대로 왕위를 계승할 만한 적장자가 없다는 뜻으로 새겨도 무방할 듯하다.

사료 g에 따르면, 526년 고구려 안장왕의 뒤를 이어 보연이 습작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다른 주변 사서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안장왕은 531년 사망하고 보연이 뒤를 이었음을 전하고 있어 이 기사는 그 사실성을 의심받았다. 필자도 안장왕의 사망연대에 대해서는 기존 531년 사망하였다는 기록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왜 『梁書』에서는 526년 보연의 습작사실을 전하였는가 하는 점이다.³⁹⁾

38)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第4 智證麻立干 卽位條, “前王薨 無子 故繼位”

39) 山尾幸久는 안장왕 사망년에 대한 상이한 두 계통의 사료를 통해 고구려내부 정권다툼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山尾幸久, 「日本古代國家の形成過程について(上)」, 『立命館文學』 278, 1968)고 하나(井上直樹, 앞의 논문, 23쪽) 아직 필자는 이 글을 접해보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해 안장왕이 동생 보연을 매우 이꼈다는 점과 연관지어 본다면 안장왕은 이미 차기왕위계승자로 동생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이 안장왕 의지의 반영인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안원왕이 즉위한 후, 대북위외교를 재개하였을 뿐 아니라 인척세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안장왕의 적극적인 대외공략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문자왕대 말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왕권을 일신하기 위해 안장왕은 백제에 대한 공략과 對梁外交를 타개책으로 선택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지지해 줄 세력을 규합하고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531년 뜻하지 않게 시해됨⁴⁰⁾으로써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3. 安原王代의 對內外關係

(1) 安原王의 卽位와 對北魏外交의 再開

531년 안장왕의 아우인 보연이 안원왕(531-545)으로 즉위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三國史記』에는 안장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아우인 안원왕이 즉위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후사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차기 왕위계승은

40) 문자왕대 이후 지지기반을 상실한 상황에서 왕권강화를 기도하던 안장왕의 정치적 활동에 위기감을 느낀 귀족들이 안장왕을 시해한 것으로 보는 견해(조영광, 「5세기 말-6세기 초 고구려의 정치동향」,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2003, 22-30쪽)가 있다. 왕과 귀족이라는 대립각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안장왕의 시해배경을 살펴 본 그의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귀족세력간 대립적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안장왕이 추진했던 안팎의 활동은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왕과 귀족의 이원적 대립 뿐만 아니라 귀족내부의 차별성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그럴 때 국사를 총괄하는 대대로와 대로를 중심으로 한 귀족회의에서 왕위계승을 위한 절차를 밟았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래는 부자상속제가 확립⁴¹⁾되기 시작한 고국천왕대부터 양원왕대까지에 한해 태자책봉 기록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3> 고국천왕대부터 양원왕대까지에 한해 태자책봉 기록

王名(前王과의 關係)	冊封年度	被冊封者	王과의 關係	其他(事由)
故國川王				無子
山上王(弟)	17年(213)	郊屍	父子	
東川王	17年(243)	然弗	父子	
中川王	8年(255)	藥盧	父子	中川王第二子
西川王		相夫	父子	
烽上王				弑害
美川王(姪)	15年(314)	斯由	父子	
故國原王	25年(355)	丘夫	父子	
小獸林王				無嗣
故國壤王(弟)	3年(386)	談德	父子	
廣開土王	18年(408)	巨璉	父子	
長壽王		羅雲	祖孫	
文咨明王	7年(498)	興安	父子	
安臧王				無嗣
安原王(弟)	3年(533)	平成	父子	
陽原王	13年(557)	陽成	父子	

뒤를 이을만한 자가 없거나 정치적 문제로 왕위계승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미천왕의 왕위추대 기록을 통해 잘 엿볼 수 있다. 『三國史記』 미천왕 즉위조에 따르면, 國相 倉助利는 봉상왕을

41) 고구려의 부자상속제 확립과 관련해서는 이기백의 견해(이기백, 「高句麗 王妃族考」, 『震檀學報』, 1959 : 앞의 책 재수록, 78-84쪽)를 따랐다.

폐하기전 乙弗을 찾으러 北部의 祖弗과 東部의 蕭友를 보냈다. 을불을 찾은 뒤, 衆人들과 뜻을 같이하여 왕을 폐하고 옥새를 왕손인 을불에게 바치어 즉위케 하였다.⁴²⁾ 우리는 여기서 국상을 중심으로 한 귀족회의⁴³⁾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는 일면을 볼 수 있다.

안장왕은 후사를 결정짓지 못한 채 시해되었다. 그렇다면, 차기 왕위계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이며 안원왕은 이러한 귀족회의의 결정에 따라 왕위계승자로 추대되었음이 틀림없다. 그러면 안원왕의 즉위에 관여한 자들은 누구였을까? 다음 기사를 주목해보자.

h-1. 是年 高麗大亂 被誅殺者衆 百濟本記云 十二月甲午 高麗國細群與麤群 戰于宮門 伐鼓戰鬪 細群敗 不解兵三日 盡捕誅細群子孫 戊戌 狽國香岡上王薨也. (『日本書紀』卷19 欽明紀 6年).

h-2. 是歲 高麗大亂 凡鬪死者二千餘 百濟本記云 高麗 以正月丙午 立中夫人子爲王 年八歲 狽王有三夫人 正夫人無子 中夫人生世子 其舅氏麤群也 小夫人生子 其舅氏細群也 及狽王疾篤 細群麤群 各欲立其夫人之子 故細群死者二千餘人也. (『日本書紀』卷19 欽明紀 7年).

『日本書紀』에 전하는 위 기사는 6세기 전반 고구려 내부에서 왕위를 둘러싼 심각한 대립이 있었음을 「百濟本記」를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 기사는 태자인 평성의 나이와 안원왕의 사망 년월 등에서 『三國史記』 고구려본기 내용과 다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고구려에서 대란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있다.

위 기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안원왕은 정부인·중부인·소부인 등 세 명의 정실부인을 두었다. 둘째, 추

42)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 第5 美川王 卽位條.

43) 고구려 귀족회의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윤성용,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韓國 古代社會의 地方支配』, 신서원, 1997 참조.

군과 세군 등은 각기 무력을 동원하여 왕위계승분쟁을 벌였다. 셋째, 안원왕은 병세가 위독하여 두 손 놓고 방관할 따름이었다. 넷째, 추군측이 승리하여 양원왕이 즉위하였고 패한 세군측은 2,000여 명이 죽었다.

위 사실에서 안원왕의 세 부인에 대해 주목해 보자. 안원왕과 혼인한 세 부인은 어떤 가계출신일까?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통혼권이 고구려에도 있었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인접국인 신라 왕실은 박씨 및 진골 출신인 김씨와 혼인이 대대로 이어져왔다. 백제에서는 진씨와 해씨가 왕비를 교대로 배출하였다. 고구려의 경우도 초기에 왕실과 대대로 혼인을 맺은 왕비족으로 연나부가 있었다.⁴⁴⁾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추군과 세군이 왕위계승분쟁을 벌일 때 군사를 동원하였다는 사실이다. 『翰苑』의 高麗記에 따르면, 大對廬로부터 中裏皂衣頭大兄에 이르는 상위 다섯 관이 군사기밀을 장악하고 병사를 징발할 수 있다⁴⁵⁾고 명시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외척세력은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관등과 관직에 있었거나 사병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이들 군사력의 성격에 대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권력과 사병을 모두 끌어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대모달에 위두대형 이상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고 말약에는 대형 이상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고 있음을 통해 이 사이에 계선을 그을 수 있다.⁴⁶⁾ 그렇다면 당시 군사력을 동원했던 인척세력들은 최소한 군사를 움직

44) 이기백, 앞의 책, 75쪽.

45) 『翰苑』 卷30 蕃夷部 高麗,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捩 比一品 舊名大對廬 總知國事…次曰太대兄 比二品 一名莫何何羅支 次鬱折 比從二品 華言主簿 次大夫使者 比正三品 亦名謂謂奢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 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謀政事 徵發兵 選授官爵” 『高麗記』는 641년 고구려에 정보수집을 위해 파견되었던 진대덕의 보고를 통해 작성되었다고 한다. (吉田光男, 「『翰苑』 註所引 『高麗記』 について-特に筆者と作成年次-」, 『朝鮮學報』 85, 1977, 23쪽) 이를 고려할 때 6세기 중반의 사정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최상위 관등의 경우 6, 7세기 부분적인 변화에 그칠 뿐 기본적인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었음을 생각한다면 이용상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일 수 있는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소지자들로 최상급의 신분에 속했던 자들을 짐작하였다.

먼저, 온달전에 눈을 돌려보자. 평원왕이 평강공주와 온달의 혼인을 만류하며 上部 高氏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한 대목⁴⁷⁾이 눈에 띈다. 당시 고씨들은 이미 혈족 분화가 깊이 진전된 단계로 방계화되어 나갔으므로 왕족으로서 의미가 없다.⁴⁸⁾ 따라서 이 때 고씨는 왕실뿐만 아니라 이런 방계화된 고씨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사성을 받은 고씨도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자는 무공에 의해 사성을 받은 고밀의 경우이다. 특히 高慈의 증조인 式은 2품 막리지에 올랐고 조부인 量은 3품 책성도독에 대상을 겸하였다.⁴⁹⁾ 이런 사실로 보아 이 가계는 고구려 최고 신분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개소문 가문 역시 양원왕대 이래로 최고위급 관등에 올랐다.⁵⁰⁾ 이밖에 현악금을 제작한 제2상 왕산악, 대승상 왕고덕 등은 낙랑계나 중국계 인물로 추정된다.⁵¹⁾ 이상을 정리해 보면, 왕실계인 고씨, 賜姓된 고씨, 연씨, 왕씨 등은 고구려 최고귀족층의 반열에 있었을 것이며, 이들 가계가 고구려 왕실의 통혼범위에 속했던 유력세력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들은 귀족회의를 주관하는 자들 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안원왕은 이들의 결정에 따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결국 당시 정국의 주도권은 인척을 비롯한 귀족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533년 平成을 태자로 책봉했음에도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은 당시 왕과 귀족의 관계를 잘 대변해준다. 이로 보아 귀족연립정권은 안원왕의 즉위와 함께 성립되었

46) 임기환, 앞의 책, 242쪽.

47) 『三國史記』 卷45 溫達傳, “溫達 高句麗平岡王時人也…及女年二八 欲下嫁於上部高氏 公主對曰…”

48) 노태돈, 앞의 책, 452쪽.

49) 「高慈墓誌銘」

50) 「泉男生墓誌銘」: 이홍직,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韓國古代史의 研究』, 신구문화사, 1971, 306쪽.

51) 임기환, 앞의 책, 272쪽.

다고 하겠다.⁵²⁾

기존 연구에 따르면, 추군계는 평양 천도 이후 국내계 세력이 위축되면서 평양 지역에 기반을 둔 낙랑·대방계와 중국계 망명인들로 왕권의 뒷받침을 받으며 장수왕·문자왕대를 통해 구귀족세력과 대립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⁵³⁾고 한다. 그렇다면 추군계와 구귀족세력인 세군계의 타협 속에 안원왕의 정치 행보도 일정한 영향을 받았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추군계가 안원왕대 對北魏外交 再開⁵⁴⁾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양원왕 즉위 후에도 외척으로서 줄곧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북조외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아울러 대북외교 재개 배경과 관련해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치품을 비롯한 각종 문물에 대한 수요이다. 여기서 이를 주목하는 이유는 각종 연례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사치품이고 왕은 귀족신료들에게 이를 내려줌으로써 충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위황실이 각종 진귀한 보물을 賑恤, 行賞, 示威 등에 사용함으로써 전제권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前田正名の 지적⁵⁵⁾은 참고할 만하다. 아래 기록은 각종 문물에 대한 고구려인의 수요를 잘 보여주고 있다.

52) 귀족연립정권 등장시기에 대해서는 異見이 존재한다. 이흥직은 귀족연립정권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양원왕 이후 왕은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다(이흥직, 앞의 책, 304-306쪽). 노태돈도 양원왕대 이후로 보고 있다(노태돈, 앞의 책, 434쪽) 임기환은 안장왕대 이후로(임기환, 앞의 책, 283쪽) 김현숙과 조영광은 안원왕 즉위과정에서 성립한 것(김현숙, 앞의 책, 317쪽 ; 조영광, 앞의 논문, 22-30쪽)으로 보았다.

53) 임기환, 앞의 책, 269-281쪽. 한편, 남무희는 '麤'와 '細'를 '멀고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백제에서 멀리 떨어진 국내성 지역에 세력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집단을 麤群으로, 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던 정치집단을 細群으로 파악하였다(남무희, 「安原王·陽原王代 정치변동과 고구려 불교계 동향」, 『韓國古代 史研究』 45, 2007, 48쪽).

54) 井上直樹는 531년 안장왕의 시해에서 보듯, 고구려내부 정권다툼에 따른 왕권의 동요를 수습하기 위해 북위와 관계개선을 도모한 것(井上直樹, 앞의 논문, 24-25쪽)으로 보았다.

55) 前田正名, 「北魏官營貿易に關する考察-西域貿易の展開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13-6, 1955, 67쪽.

i-1. 상이십월제天 國中大會 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爲飾 好蹲踞 食用俎几. (『魏書』卷100 高句麗傳).

i-2. 其冠曰骨蘇 多以紫羅爲之 雜以金銀爲飾…書籍有五經 三史 三國志 晉陽秋…敬信佛法 尤好淫. (『周書』卷49 高麗傳).

i-3.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明 其公會衣服 皆錦繡金銀以自飾…好厚葬 金銀財幣盡於送死. (『梁書』卷 54 高句麗傳).

i-4. 俗愛書籍 至於衡門廡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局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 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舊唐書』卷199上 高麗傳).

10월 제천행사시 화려한 비단옷에 금은으로 치장한다든지, 厚葬하는 풍습, 佛法숭배 등은 그에 따른 물품의 수요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소수림왕대 대학이 설치되고 이후 지방의 촌락 곳곳에 설치된 경당⁵⁶⁾을 통해 독서를 하는 풍속 등도 각종 서적과 문물에 대한 열망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교역이 필수적이다.

고구려는 462년 이후 60여 년간 북위와 잦은 교섭을 가졌다. 당시 교역은 주로 관영무역을 통해 전개되었다. 결국 10년 남짓 북위와의 공식적인 외교가 중단됨으로써 귀족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이 막혔고 이는 일부 梁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하였을 것이나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귀족들의 불만이 왕권강화를 위한 안장왕의 정치행보-외교관계, 정계개편-에 대한 반발과 맞물려 왕에 대한 시해로 표출되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안원왕의 즉위와 함께 고구려는 남북조와 꾸준하게 교류를 지속하였다.

56) 이기백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중인 평양천도(427년) 어간에 원시미성년 집회에서 局堂으로 개편되었을 것(이기백, 앞의 책, 100-101쪽)으로 보았다.

이는 안원왕에게 내린 책봉호 변화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520년 안장왕은 梁으로부터 寧東將軍 都督營平二州諸軍事 高句麗王을, 북위로부터 安東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을 제수받았다.⁵⁷⁾ 특히, 북위가 제수했던 安東將軍은 太和 23年(523)에 의하면, 正3품에 해당한다.

한편, 안원왕은 532년 북위로부터 使持節 散騎常侍 車騎大將軍 領護東夷校尉 遼東郡開國公 高句麗王⁵⁹⁾을, 534년 동위로부터 驃旗大將軍을 加號⁶⁰⁾하였다. 이는 종1품에 비견된다. 남북조시대 주변국이 받은 책봉호상의 장군호가 국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⁶¹⁾하기도 했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고구려에 대한 평가가 안원왕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물론 책봉시 수여된 장군호는 각국의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책봉의 주체인 남북조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⁶²⁾ 따라서 안원왕의 높은 책봉호⁶³⁾는 고구려에 대한 우호적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안원왕대 고구려와 북위(뒤이은 東魏)의 관계가 가까워진 배경이 무엇인가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북위 말 육진의 난 이후 상황이다. 북위는 6년간에 걸친 오랜 반란을 진압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약화되었다. 河南에서는 532년 爾朱榮의 부장이던 高歡이 세력을 장악한 뒤 낙양에 입성하여 효무제를 옹립하였으나 관중으로 도망가 버렸다. 고훈은 鄴都로 도성을 옮기고 효정제를 옹립하였다. 한편 關隴지역에서는 534년 賀拔岳이 제거된 이후 그의 部長이던 宇文泰가 長安으로 들어가 東魏에서 온 효무제를

57)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臧王 2年條.

58) 『魏書』卷113 官氏志.

59) 『魏書』卷100 高句麗傳.

60)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原王 4年條.

61) 坂元義種, 「五世紀の日本と朝鮮」, 『古代東アシ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62) 김종완, 「冊封關係의 成立과 運用」, 『中國南北朝史研究』, 일조각, 1995, 125-126쪽.

63) 井上直樹는 북위의 안원왕 책봉에는 고구려의 북위사과전이 있었음을 전제하고 이것이 북위의 외교정책과 결부되어 장군호에 높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였다(井上直樹, 앞의 논문, 36쪽 註43).

맞아들여 西魏를 건국하였다. 이로써 남북의 이원적 대립구조는 북조가 동서로 분열함에 따라 삼국이 경쟁하는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⁶⁴⁾

국제관계의 재편으로 삼국(東魏, 西魏, 梁)관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536년 동위의 건사⁶⁵⁾ 이후 梁과는 매년 사신을 파견할 정도로 가까워진 반면, 서위와 梁의 교류는 551년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고구려도 둔감하지는 않았다. 안장왕이 시해되고 안원왕이 즉위하였지만, 梁에 대한 건사는 꾸준히 이어졌다. 아울러 북위(이어서 동위)와 관계를 재개하였다.

동위 역시 삼국이 분립된 상황에서 주변국의 사신과견을 반겼을 것이다. 안원왕의 對梁 外交에 대해 동위의 불만이나 갈등양상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북위가 장수왕대 남북조 등거리외교에 대해 비난하며 번병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던 모습⁶⁶⁾이나 앞서 본 안장왕대 梁의 고구려사신을 낙양으로 압송하던 일과 확연히 대비된다. 단순히 사료상의 누락으로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경쟁 상대이자 강력한 적인 서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安原王代의 對南方關係

남북조와 화평한 교류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면 고구려의 대남방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안장왕대 고구려는 백제의 북변을 공략하여 한수 하류이북지역을 손아귀에 넣었다. 그런데 531년 안장왕이 시해되고 안원왕이 즉위한 후 10년 남짓 백제 및 신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가 없다. 이는 사료의 멸실에도 한 원인이 있겠지만 당시 가야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신라와 백제 간 미묘한 갈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64) 정재훈, 「西魏, 北周時期(534-581)의 對外政策」, 『中國學報』42, 2000, 283쪽.

65) 『梁書』卷3 武帝下 大同 2年, “十二月壬申, 魏請通和 詔許之”

66)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第6 長壽王 68年條.

522년 대가야와 신라가 혼인관계를 맺은 이후 일부 가야세력이 백제와 신라사이에서 외교적 양분현상을 노정하는 정황이나 532년 신라의 금관가야 병합은 양국간 갈등의 불씨를 짊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구려의 위협이 상존하여 양국의 상호 군사행동을 억제하였다.⁶⁷⁾

이런 가운데 백제는 538년 정략적으로 사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천도 배경에 대해서는 지배질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성왕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⁶⁸⁾ 그런데 천도가 단행될 수 있었던 데는 백제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대외상황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백제의 대외관계를 규정짓는 1차 변수는 고구려이다. 당시 고구려 내부사정은 썩 좋지 않았다. 안원왕은 『三國史記』에 묘사된 그의 외향과 달리 내부를 추스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의 치세기간은 잦은 天災로 국내 상황이 매우 어수선하였다. 535년부터 3년간 홍수, 지진, 가뭄, 역병 등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민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려 내부불안을 조성하였으며 왕이 서둘러 진흥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안원왕은 즉위과정에서 인척세력을 등에 업고 있었다. 따라서 안장왕대와 같이 왕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주도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이러한 안팎의 사정을 고려한 위에 백제 성왕은 천도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양국관계는 소강상태가 당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백제가 540년 고구려를 공격함으로써 깨어진 다. 아래 사료를 통해 이를 좀더 분석해 보겠다.

j-1. 秋九月 百濟圍牛山城 王遣精騎五千擊走之.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安原王 10年).

j-2. 秋九月 王命將軍燕會 攻高句麗牛山城 不克.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第4 聖王 18年).

k. 百濟遣使請和 許之.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年).

67) 이강래, 「삼국의 성립과 영역확장」, 『한국사』 3, 한길사, 1994, 225쪽.

68) 노중국, 『百濟政治史研究』, 일조각, 1988, 162-167쪽.

540년 백제는 우산성을 포위하였다. 우산성은 496-497년에 걸쳐 신라와 고구려가 크게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결국 497년 고구려가 신라로부터 우산성을 공취하였다. 이 우산성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⁶⁹⁾ 우산성의 정확한 위치비정은 힘들지만 대략적인 비정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풀기위한 실마리로 泥河가 주목된다.⁷⁰⁾

l-1. 秋七月 遣兵攻新羅牛山城 新羅兵出擊泥河上 我軍敗北.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明王 5年).

l-2. 秋七月 高句麗來攻牛山城 將軍實竹出擊泥河上 破之.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第3 照知麻立干 18年).

m-1. 秋八月 遣兵攻新羅牛山城 取之.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 第7 文咨明王 6年).

m-2. 八月 高句麗攻陷牛山城.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 第3 照知麻立干

69) 『三國史記』雜志 第6 三國有名未詳地分條에 그 이름이 보인다. 이지린과 강인숙은 481년 이후 고구려와 신라간 전투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산성은 삼국간 접촉지점인 보은, 충주 부근에 있었다고 추정하였다(이지린·강인숙, 『고구려 역사』(사회과학출판사 편찬), 논장, 1988, 96-97쪽). 서영일은 신라 장군 實竹의 활동지역과 관련하여 이를 선산 북쪽 예천부근으로 비정하였다(서영일, 「5-6世紀의 高句麗 東南境 考察」 『사학지』, 21-22쪽). 김병남은 牛岑郡을 牛嶺이라고도 한다는 『三國史記』雜志6 한산주의 기록을 통해 현재의 황해도 금천군 우봉면으로 비정하였다(김병남, 「百濟 領土變遷史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41-142쪽).

70) 니하의 위치를 비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니하는 일반명사로 볼 수 있다. 『新唐書』渤海傳에 기록된 발해와 신라의 국경으로서 니하와 『三國史記』 초기 기록에 자주 보이는 니하는 전혀 다른 지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니하의 위치 비정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何瑟羅와 悉直이 가리키는 범주에 대한 이해이다. 대체로 하슬라와 실직은 강릉과 삼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지명이 가리키는 범위는 기사의 맥락에 따라 달리 이해될 소지가 있다. 즉, 넓은 범위를 가리키는 州개념과 좁은 의미의 州治개념으로 구분해 보아야 한다.

19年).

1기사에 따르면, 고구려가 우산성을 공략하자, 신라가 泥河에서 출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니하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⁷¹⁾ 그 위치를 추적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이다. 첫째, 496년까지 우산성은 신라가 영유하였으나 497년 고구려가 차지한 이래 540년 백제가 공격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우산성이 삼국간 국경이 맞닿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500년을 전후로 신라는 소백산맥 이북으로 고구려를 구축하였다. 소지마립간의 경복북부 순행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우산성은 소백산맥 부근이나 이를 넘어선 충북, 강원도부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라가 고구려군을 물리치기 위해 니하에서 출병하였다면 니하와 우산성은 상호 지원이 가능한 근거리에서 위치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넷째, 고구려의 우산성 공취는 국원성의 거점 확보와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신라와 잦은 마찰로 남방지역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남방경략의 거점인 중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한강 상류⁷²⁾나 낙동강 상류⁷³⁾로 비정한 견해가 위의 사실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그런데 남한강 상류의 경우, 국원성과의 지리적 접근성이나 국원성의 고구려영유와 같은 역사적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이 신라의 군사지배아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니하의 위치는 낙동강 상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니하의 위치가 낙동강 상류이고 삼국 국경이 접하면서 고구려의 남방 거점인 국원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71) 泥河의 위치와 관련한 연구사 정리는 다음 두 논문이 참고된다. 서영일, 「5-6世紀의 高句麗 東南境 考察」, 『史學志』 24, 1991, 18-20쪽 ; 장창은, 「新羅·慈悲~炤知王代 築城·交戰地域의 검토와 그 의미」, 『新羅史學 報』 2, 2004, 10-18쪽.

72) 津田左右吉, 「好太王征服地域考」, 『滿鮮歷史地理』, 1913 ; 이강래, 「三國史記에 보이는 靺鞨의 軍事活動」, 『영토문제연구』 1 : 정운용, 「5-6世紀 新羅·高句麗關係의 推移」, 『신라의 대외관계사 연구』 15, 54-55쪽.

73) 이지린·강인숙, 『고구려 역사』 (사회과학출판사 편찬), 논장, 1988, 94-95쪽 ; 양태진, 「고구려 영토 연구」, 『군사』 18, 1989, 32쪽.

둔다면, 우산성은 조령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맥 일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정확한 위치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백제가 국원성과 가까운 우산성을 공격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발적인 군사행동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백제나 신라에게 고구려 남방거점인 국원성은 눈에 가시와 같은 곳이다. 이곳을 공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백제의 우산성 공격은 좁은 의미에서 고구려 남방거점 공략의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넓게는 한수 유역을 둘러싼 삼국간 항쟁의 전주곡이었다. 그리고 백제는 우산성을 공략한 다음 해인 541년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화평을 청하였다. (사료 k) 백제 및 신라의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고구려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4. 맺음말

문자왕대 후반 고구려 왕권은 5세기의 전제적인 모습과는 달리 약화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문자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안장왕은 도약의 기치를 내걸고 왕권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안장왕은 520년대 초 남북조의 세력관계를 조망하는 가운데 북위가 내란에 빠지자, 종래 北魏重視政策을 버리고 對梁重視政策을 취하였다. 북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방비를 하는 가운데 군사적 마찰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긴장상태를 늦추지 않은 채 팽팽히 북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편, 백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략을 벌여 한수 하류유역으로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안으로 졸본의 시조묘를 배알한 후 국내를 순행하며 민심을 다졌다. 이상과 같이 적극적인 대내외정책을 통해 안장왕은 왕권을 뒷받침할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보도 531년 시해를 입고 일단락되었다. 이 사건은

안장왕의 대내외정책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인척을 등에 업은 채 귀족회의의 추대를 받아 즉위한 안원왕은 그 만큼 운신의 폭이 적었다. 재위기간 내내 일어나는 천재지변은 이를 대변해준다. 남북조관계에서도 대북외교를 재개하였다. 그 결과 북위는 안장왕에게는 턱없이 낮은 책봉호를 내렸지만 안원왕에게는 車騎大將軍을 제수하였다. 이후 고구려는 동위에 매년 사신을 파견하였다. 對南方關係의 경우, 가야지역을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갈등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540년 백제가 고구려를 공략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의 빌미가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7. 5. 31, 심사완료일 : 2007. 8. 10)

주제어 : 고구려, 안장왕, 안원왕, 정국동향, 대외관계

<ABSTRACT>

The Inner Movement and Foreign Relations of *Goguryeo* Dynasty's(高句麗) in the Early 6th Century

Kim, Jin-han

The royal power of *Goguryeo* Dynasty in the latter half of King *Munja's*(文咨王) reign was weak when compared with the late 5th century. King *Anjang*(安臧王) who succeeded to the throne after his father began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Goguryeo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South Dynasties(南北朝) and watched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in the 520's. As the Northern *Wei*(北魏) fell into disorder and civil war, *Goguryeo* broke of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ern *Wei*. Accordingly, *Goguryeo* dispatched an envoy to Yang(梁) in 526, groping for a change in foreign policy. Meanwhile *Goguryeo* made full defensive preparations and on the other hand it attacked Northern *Wei*. In this manner, *Goguryeo* kept close watch over the movements of Northern *Wei*.

King *Anjang* attacked *Baekje*(百濟) which underwent a change of the throne. As a result, *Goguryeo* occupied the Han River Valley(漢水). In addition, King *Anjang* made a tour of the country so as to see how the people were living, after he had worshipped at the ancestral shrine of the royal family.

But, he was assassinated in 531 and political reform was stopped. It seems King *Anjang* was assassinated by those who opposed his foreign policy. King *Anwon*(安原王) succeeded to the throne with the help of royal in-laws. However, *Goguryeo* met with frequent natural disasters during his reign. From this we

know that royal power was weakened.

As a result, *Goguryeo* dispatched an envoy to Northern *Wei* in 532, groping for a change in foreign policy. Since then *Goguryeo* dispatched envoys to Eastern *Wei*(東魏) every year. Because *Baekje* and *Silla*(新羅) were busy fighting each other over *Gaya*(加耶), relations with *Goguryeo* were stable. Since *Baekje* attacked *Goguryeo* in 540,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grew worse.

Key Words : *Goguryeo*, King *Anjang*, King *Anwon*, The Inner Movement,
Foreign Relations